

하루를 시작하며



김 연
시인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 최승자,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
이어> 부분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지만, 최근
서점가의 흐름은 그 통념을 조용히
뒤집는다. 종이책 판매량은 오히려

그리하여 어느 날, 다시 서사(Narrative)

늘고, 두껍고 어려운 책들까지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지능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굳이 종이를 넘기며 느린 활자로 되돌아가는가.
1980년대, 최승자 시인은 관념과 비유의 회로를 건어낸 자리에 ‘콘크리트 벽’을 세웠다. 사랑조차 오늘
의 닭고기를 씹고 눈물을 삼키는 노동으로 환원되던 시절, 실존은 벽에 부딪혀 바스러지는 감촉으로 겨우 증명되었다.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 지능은 손끝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나 닿는다. 지식의 정수는 화면 너머로 공평하게 건너오고,
연령과 계층을 가로질러 똑똑한 조력자가 곁을 지킨다. 일찍 오래
꿈꾸던 지식 민주주의가 이뤄진 듯하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접속만 하면 닿는다는 그 평등한
부터가 반쪽짜리 약속일지 모른다. 정교한 지능일수록 값을 요구하고,

그 값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없는 이의 격차는 벌어진다. 문턱은 낮아졌으나 그 안의 방들은 여전히 나눠 있다. 그 안에서도 균열은 감지된다. 짧은 음성 표본으로 복제된 답페
이크가 목소리를 탈취하고, 평생 바쳐온 지적 노동의 가치가 순식간에 휘발되는 일터마다 정제 모를 불안이 번진다. 알고리즘이 촘촘히 설계한
화면 속에서 아이들은 가짜 정보와 솜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하는 피로가 일상
위에 더께처럼 내려앉는다. 지능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끝내 대신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물음 끝에 언어가 있다.
생성형 지능이 작조하는 문장은 매끈하고 결점이 없다. 슬픔을 겪어본 적 없이 슬픔을 모사하고, 경험한
적 없는 소멸의 서사를 기막히게 요약한다. 그러나 고통을 통과하

지 않은 언어는 잠시 눈길을 붙들 뿐, 곧 헛헛함을 남긴다. 몸이 없는 지능은 아플 도리가 없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바스러질 몸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시가 오늘날 전혀 다른 울림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인공지능이 삶의 모든 번거로움과 관념을 매끈하게 다듬어줄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무해함 속에서 비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고전을 펼치고, 때로 고통스러운 타인의 서사에 굳이 시간을 내어 머무는 까닭은, 실존의 한계와 상처가 알고리즘이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가상의 매끄러운 비유를 넘어, 내동댕이쳐진 생의 구체성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일. 기술이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콘크리트 벽 앞에서, 인간의 서사는 다시 시작된다.

열린마당

꿈을 향해 달리는 순간, 출동벨이 울렸다



노 에 림
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2학년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한 뒤 가장 기다려왔던 실습은 소방실습이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한 순간부터 119 구급대원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실습이 제주동부소방서 표현119센터에서 시작됐다. 처음 센터에 들어섰을 때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구급차와 장비를 가까이에서 보고 구급대원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꿈꾸

던 곳에 한 걸음 다가간 기분이었다. 실습 중 교통사고, 낙상, 흉통 등 다양한 출동을 경험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주소소와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의식상태와 증상을 종합해 상태를 판단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며 공부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은 심장지환자였다. 현장에 도착해 반응이 없는 환자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과 AED, LUCAS가 사용되는 과정을 보며 배운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실감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빠르게 소통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지식과 슬기뿐 아니라 책임감과 친척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실습은 왜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 긴박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판단·행동하는 응급구조사로 성장하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결혼이주민이 지역관광 전문인력으로

도 ‘글로벌 큐레이터’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결혼이주민을 다국어·다문화 역량을 갖춘 지역관광 전문인력인 ‘글로벌 큐레이터’로 양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이번 사업은 제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을 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모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 7개국 출신 결혼이주민 30명이 기본교육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20명이 체험관광 기획, 지역 콘텐츠 제작, 한식 체험, 홍보·판촉 등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도 관광상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남문2지구 도시재생센터 운영

○…제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용담1동, 일도2동, 구좌읍 세화지구 등 3개 지구에 이어 내년부터 남문2지구(이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운영할 계획.
4월 시에 따르면 현장지원센터는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설명회 운영 ▷주민공동사업지원 ▷주민협의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관리 지원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갈등 조정 등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역할을 담당.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이 직접 이끄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

사설

칭다오 협정 새로 추진, 손실 축소 협상력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을 위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추진된다. 기존에 체결한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중국 선사 측과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칭다오 항로 협정 문제와 관련 “새로 계약을 맺어 손실보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칭다오 항로 협정은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2024년 체결됐다. 항로가 개설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도가 선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48억원에 달한다. 화물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손실을 보전해 줬기 때문이다. 또 이번 협정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 감사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남비와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위법논란을 초래한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항로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양국 교류 위축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불거질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실보전금을 줄이고 운항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협정이었던 만큼 제주도는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주 항공 노선 공공성 강화 서둘러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7월 관광객은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었고, 내국인 관광객은 5.2% 감소했다. 휴가철을 맞아 내국인 감소 폭은 둔화세지만 회복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항공권 유허할증료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항공 공급 좌석마저 지난해보다 줄면서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올랐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가 경영난을 이유로 계속 운항하지 않아 좌석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료 상승으로 관광 비용이 늘어난다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유허할증료는 낮아지겠지만, 항공 좌석은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연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항공 좌석 부족 해소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 차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좌석을 확보하려면 제주도가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좌석 부족이 장기간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인 데다 항공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만큼 정부와 제주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항공 좌석은 제주관광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도민과 국민이 이동하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 국민이 겪는 대중교통의 불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맞다. 정부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항공사 등이 좌석 확충을 위한 공동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부 고

진영수(전직 교사) · 진영진(번호사) 아버지
진주진공 문민(향년 95세)께서 서기
2026년 8월 4일 오전 8시경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발인일시 :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발인장소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장 지 : 상례동 가족묘지

아들	진영수	며느리	송정민
	영진		강승미
딸	진영희	사위	서창남
	영신		고성효
	영나		배정용
손자	진성권	외손자	서정훈
	성환		서성훈
	성지		고경후
외손녀	고유경	외손녀	배서우
	고영경		배성은

※ 연락처
진영수 010-3325-5150 진영나 010-2708-3126
진영진 010-6633-1908 고성효 010-3240-1941
송정민 010-3821-3208 진성환 010-6798-3166
강승미 010-3463-7702 고경후 010-5777-6807
진영신 010-5691-6807

상속한정승인공고

상속 안: 강진경 (1968년 02월 28일 생)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오도5길 1, 301호 (이호이동, 상원면)
강도현 (1971년 01월 15일 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문로 67, 502동 804호 (목동동, 해솔마을5단지 삼부트대상스)
피상속인: 방 강문병 (1941년 09월 30일 생)
2026. 04. 09. 사망
최후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5길 124-54 (해안동)
피상속인 방 강문병은 2026. 04. 09. 사망하여 위 상속인들은 2026. 07. 29. 제주지방법원 2026년335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다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의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강진경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오도5길 1, 301호 (이호이동, 상원면))
3. 전화번호: 010-2795-2854
2026년 08월 0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진경 강도현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A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어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 자택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